

주간기도정보

2024. 8. 6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라”

‘조력존엄사 법안 통과되면 자살·살인 방조하는 나라 될 것’

한국교회언론회,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반대 논평 발표



정치권에서 2년 전에 폐기된 소위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지난 30일 논평을 통해 ‘조력존엄사’법이 만들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자살과 살인을 방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7월 5일 발의한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412)은 의사 조력을 통한 환자의 자발적 생명 종결을 합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자들은 현재 법률로는 말기 환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 보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삶의 질을 고려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意思)로 담당 의사(醫師)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다. 또한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해 환자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법제화하고 환자의 죽음을 도운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에 언론회는 오랫동안 질병으로 말기 환자처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지만, 신(神)의 영역인 인간의 수명을 사람들이 법률로 정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살인’인데 비록 의사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일종의 살인”이라며 말기 환자들의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통까지도 신이 내린 인간의 수명이라면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이른바 ‘소극적인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약물 처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존엄사’나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여 죽게 하는 ‘안락사’는 금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조력 사망이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콜롬비아와 우루과이는 안락사를,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조력 사망과 안락사를 모두 허용한다. 그리고 미국의 10개 주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도 조력 사망을 허용한다.

언론회는 “이번 법률안 발의는 제22대 국회가 적극적인 살인 방법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2개월 만에 발의된 법안만 해도 2,353개에 달하고, 법률안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전 세계가 다 존엄사나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만은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조력존엄사’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광범위하게 자살과 살인을 방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디모데전서 6:15)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전도서 3:1-2,11)

하나님, 사람의 생사화복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애써 부인하고 ‘조력존엄사’라는 법률을 만들어 인간이 생명을 주도적으로 마감하려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온 세상이 동성애와 조력사, 안락사와 같은 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때 교회가 잠잠치 않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케 하옵소서. 만사에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으며,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소서. ‘조력존엄사’ 법률이 통과되지 않도록 간구하는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사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되신 주님의 영광을 한국과 열방에 나타내 주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그들은 흑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북한 수해로 마을·논밭 사라지고 철길도 뚝

북한 당국 피해 규모 공개되지 않아···지원 물자는 김정은 간 곳에만 집중



압록강 범람으로 북한 신의주 지역 홍수 피해 심각

통일부는 1일 수해를 입기 전인 올해 5월 8일 북한 압록강 위화도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지난달 29일과 31일 공개한 해당 지역 수해 사진과 비교해보면, 신의주와 의주 일대를 강타한 폭우의 침수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위화도 북부는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건물이 들어선 일부 구역을 제외한 주변 지역이 모두 침수됐다. 올해 5월 녹색이 선명한 경작지는 자취를 감췄다. 철로를 삼킨 거대한 물길 앞에 하염없이 멈춰 선 열차를 담은 수해 사진도 발행됐는데, 침수 전 위성 사진에선 경작지 사이로 시원하게 뻗은 철로를 확인할 수 있다.

범람으로 열차 주변의 낮은 건물 수십 채도 침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화도 중심부 마을을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주택 수백 채가 경작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수해 사진에는 논밭은 보이지 않고 주택의 지붕 일부만 나타날 뿐이다.

통일부는 “우리측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현재 (평안북도 신의주시) 위화도 전체, 의주군, 자강도 만포시까지 침수가 식별됐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소집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의 발표 형식으로 북한에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으로 통일부가 밝혔다. 2일 김인에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연락채널을 통해 통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응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수해로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을 잃은 주민들 동향을 감시하면서 슬픈 내색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지난달 28일 수재민들은 가족이 홍수에 떠내려간 것에 통곡하다 감시요원에게 저지당했다”며 당국은 수재민 방에 TV와 비디오를 연결해 “최고존엄이 침수지역 인민들을 구출했다는 영상을 보게 하고(김정은의) 인민사랑에 고마움을 갖도록(강요)했다”고 말했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압록강 하류의 신의주 위화도에서 수해 피해자가 가장 많고, 다른 섬들과 의주군에서 실종, 사망자를 집계하면 1,000명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폭우로 인한 수해 지역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 북한 북부 국경 지역은 물론 황해남도과 강원도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재민을 위한 지원 물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했던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개천 탄광지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난달 27일 집이 침수되면서 현재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이 절실한데 특정 지역에만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니 주민들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출처: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 데일리NK 종합).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이사야 49:15-17)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립보서 2:3-5)

하나님, 폭우로 인해 곳곳이 침수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였으나 가족을 잃은 슬픔조차 표현할 수 없고 피해 규모도 다 알 수 없는 북한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감당할 수 없는 수해로 도움이 절실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호물자도 받지 않고 주민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북한 정권을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피해 지역에 온전한 공급이 이뤄지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여 주사 주의 손바닥에 새긴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북한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푸사 주가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나타내 주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연합수련회’로 다음세대 살린다! 141개 한국교회 참여
북한 이탈 청년들과 고려인 다음세대를 위한 수련회도 열려...



7월 29일 141개 한국교회에서 온 1,200여 명의 청소년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위아처치(서길원 목사)가 주최한 ‘제14회 청소년기름부음캠프’(청기캠) 연합수련회는 1·2차로 나뉘어 8월 3일까지 이어졌다. 캠프가 열리는 수원 경기대학교(이운규 총장) 텔레컨벤션센터는 1,500석을 채운 예배자들의 열기로 뜨거운 분위기였다.

미자립교회·개척교회 등 청소년·청년 캠프가 쉽지 않은 교회들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참가를 도와 작은 교회 청년들이 위축되지 않고 함께 모여 영성을 키우는 교파를 초월한 여름철 연합수련회가 잇따르고 있다.

14년간 캠프를 이끌어온 서길원 빛가온교회 목사는 “청소년부 인원이 거의 없어 커뮤니티 자체가 형성되기 힘든 작은 교회들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기 어려운 교회들이 초교파로 모이는 연합수련회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교육부 총무인 흥헌기(49) 총민한교회 목사는 “지역교회에서 강원도 정선의 미자립교회 참가비 절반을 지원해서 작년부터 함께 청소년기름부음캠프에 왔다”며 “한 공동체라는 분위기 안에서 운영되는 연합수련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작은 교회를 대상으로 참가비를 대폭 할인하거나 전액 지원을 하는 캠프도 있다. 교회교육선교회(김성환 목사)가 주최한 어린이 연합수련회 '만원캠프'는 '참가비 1인 1만원'과 하루로 끝내는 '일일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어린이 '만원캠프'는 참가자 90%가 교회학교 정원이 10명 이내인 교회다.

8월 8일부터는 한꿈학교 여명학교 남북사랑학교의 북한 이탈 청년들과 한국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남북청년연합수련회'가 사흘 일정으로 경기도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굿타이딩스선교회 소속 윤광식 목사는 "본선교회는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탈북대안학교 출신의 청년들에게 참가비 전액을 지원하고 캠프 예산도 후원한다"며 남북의 청년이 함께 모여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수련회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인 다음세대를 위한 여름 수련회가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열려 비전을 나눴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을 비롯해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고려인 어린이 60명이 참석하는 '고려인 어린이 힐링캠프'가 새론고려인국제학교(교장 김나탈리아)에서 열렸다.

김나탈리아 교장은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방식의 교육시스템을 개발해 긍정적인 사고와 희망적인 꿈을 심어주려 한다"며 "이들이 미래 한국 사회와 고려인 동포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로새서 2:2-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시편 110:3)

하나님,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교파를 초월하며 학교와 교회가 연합하는 등 다양한 캠프를 통해 사랑 안에서 연합된 교회 공동체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프를 통해 주님을 만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오직 주만 따르는 기쁨의 행진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이주민 다음세대들에게 최상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오니 이들의 삶을 돌보사 매 순간 복음 되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축복을 더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무장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친 세속의 물결 가운데서 당당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보화와 같은 주의 지혜와 지식을 온 열방에 자랑케 하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